

□ 소비동향

○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 건강 관심 증대

- 일본 음료 시장에서 야채음료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대지진과 원전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건강 관심 증대
- 방사능 오염문제로 인해 신선야채 및 건강음료 수요 증가

< 일본음료시장 통계 >

(단위: 억 엔)

구 분	2011	2012e	전년대비(%)	2013f
과실/야채음료	4,936	4,958	101	4,972
탄산음료	4,739	4,905	104	4,904
유제품	11,025	11,015	100	10,906
기호음료	18,577	18,827	101	18,826
미네랄워터류	3,042	3,019	99	2,974
기능성음료	5,483	5,531	101	5,531
기타 음료	748	744	100	752
시장합계	48,550	49,026	101	48,865

\* 일본농협협동조합신문 (2013. 1. 18)

-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선야채 대체 수요 상승 2011년에는 전년대비 113.4% 증가

○ 미네랄워터

- 지하수 중에 음 용 가능한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말함

- 방사능 문제로 수요가 높아졌으나 수입품은 경수라는 특성과 높은 가격으로 일본산에 밀림

○ 유제품 음료

- 지진 직후 우유 등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했지만 실적은 양호.

- 두유 류는 신규 수요로 호조세인 두유음료와 함께 무 조정 두유와 조정 두유도 수요가 증가.

○ 야채(토마토) 음료

- 토마토는 대사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언론 보도된 후 토마토가 주축인 기업의 주력도가 높아짐

□ 음료 수출전략

- 채소음료가 본격적인 성장함에 따라 1년간 전년대비 약 8% 성장

- 한때는 맛을 중요시하여 기호음료에 가까웠지만, 건강에 대한 가치 향상과 지진의 경험으로 <마시는 이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신규 고객이 늘고 있음

□ 음료 내수상황

○ 과실음료

- 일본 내 과실음료는 작년 1~12월은 약 3% 감소하고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음료 카테고리에서 과일 맛을 내는 음료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실음료 자체 이슈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나 웰빙을 추구하여 어필할 필요성이 있음

○ 채소·과즙을 믹스한 음료

- 채소·과즙을 믹스한 음료는 각 사의 주력 아이템이 서로 중복되는 동시에 기복이 심한 카테고리이기도 함
-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절별로 새로운 맛 출시와 다른 소재와 조합시킨 상품도 눈에 띄어
- 향후에는 채소음료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녹즙계 상품의 부활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이슈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함